

## 저마 (Ramie) (1)

우리말로 모시다. 한자로 저마(苧麻 또는 紵麻)라고 하며 라미라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섬유다. 라미란 이름은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재배되었던 저마의 이름을 말레이시아어로 'Rami'라고 하였는데, 그 후 이것이 프랑스로 들어가면서 Ramie란 이름으로 정착되어 국제적인 용어가 되었다.

저마는 쐐기풀과(Urticaceae)에 속하는 모시풀속(Boehmeria)의 식물에서 채취하는 인피섬유다. 저마는 숙근성의 다년생 초목으로 뿌리의 번식이 왕성하며, 고온 다습을 좋아하고, 특히 햇빛을 즐기는 식물로 주산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의 남동부(양자강 연안),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라질 등이다.

저마는 보통 50일정도 자라면 1.5-3m가 되며, 줄기의 직경은 0.6-1.4 cm 이고, 온대지방에서는 일년에 2-3회, 열대지방에서는 4-6회까지도 수확을 한다. 줄기는 한 가운데가 목질부이고, 그 목질부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인피이며, 외층이 껍질이다. 아마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모시의 역사는 중국 후한서 동이전에 이미 삼한시대부터 마섬유를 재배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시대에 들어와 모시 짜는 기술이 발달하여 신라 경문왕 때는 모시가 귀중한 수출품이었고, 삼국사기에서는 당나라로 수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아직 면화가 보편화되기 이전이란 탓도 있었겠지만, 상하 귀천이 없이 모두 모시를 상용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었고, 제조기술도 상당히 발전하였던 것 같다.

이조 시대에는 극상 세저포, 흑저포, 황저포, 청저포, 백저포 등의 이름으로 세분하여 품질의 등급을 매겨 각광을 받았다.

현재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에서 나오는 한산모시가 우리나라 모시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 한산모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2011. 11. 28 )되기도 한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이 한산모시는 세 번을 수확하는데, 8월에 수확한 것과 10월에 수확하여 만든 모시가 가장 품질이 좋다고 한다.

그런데 엄밀히 분류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시는 앞이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 라미라는 이름이 있고, 저마는 앞의 뒷면에 백색 섬모가 나 있어 백색 라미란 이름이 있으며, 이것을 중국 초(China Grass)라고도 했는데, 이 두 가지 라미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라미는 곧 저마란 호칭이 일반화되었다. 중국 초란 1872년 중국에서 저마제품이 대량으로 영국으로 수출된 것으로부터 유래된 영국식 이름이다.

세모시같은 실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실이 잘못하면 엉키기 쉬워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면, 세모시가 엉키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빗대어 옛 사람들은 난마(亂麻)와 같은 세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공석봉)



저마 식물